

세계ODA사업동향

코이카의 주요 ODA사업 추진 동향

베트남, 라오스 ODA사업 협력 강화
 대 베트남 향후 확대지원계획 협의
 코이카, 미얀마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 성과 평가
 아제르바이잔 상하수도시설 구축사업 착공식 개최
 케냐 라무 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세네갈 11개 지역에 안전한 식수 공급

ODA사업을 위한 국내 협력 동향

무·유상의 만남, 코이카와 한국수출입은행 MOU 체결
 ODA 효과성 극대화 위한 실제적 협업 방안 논의
 코이카와 서울특별시, 업무협조약정 체결

코이카의 주요 ODA사업 추진 동향

가. 베트남, 라오스 ODA사업 협력 강화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의 김영목 이사장이 베트남과 라오스 등 현지를 방문하고, 향후 각 나라와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쓰엉 화 빙(Truong Hoa Binh) 베트남 당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최고인민법원장을 만났다. 이날 쓰엉 화 빙 최고인민법원장은 베트남 사업 분야에 대한 코이카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사법 분야 고위급 출장팀 교환과 기자재 지원, 법원 공무원과 판사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한-베 간 사법 분야에서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다”며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13~15일 김 이사장은 라오스를 방문해 코이카가 지원한 최초의 아동병원인 국립 아동병원을 둘러보고, 엑사방 응위킷 보건부 장관과 분콩 시하봉 차관을 만나 라오스 보건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2011년에 완공된 아동병원은 70명상 규모로 건축부터 의료진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총 350만불이 투입된 사업이다. 개원 당시 하루 환자가 10여명에 불과했던 아동병원은 입소문을 타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외래환자 2만 9,000여명, 입원환자 2,3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도 외래와 입원환자 수를 초과할 정도로 많은 라오스 어린이들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치료를 위해 상경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라오스의 열악한 모자보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의료인력 양성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수원국이 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기본원칙임



* 본 내용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에서 발행하는 최신 소식을 관련기관 협의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

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라오스지원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김 이사장은 라오스 비엔티안 주에 소재한 5개 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2차 사업 현장 중 하나인 톤응마을 관개수로 현장을 찾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싱감 콩사반 비엔티안 주 부주지사 및 ODA 새마을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싱감 부주지사는 우리 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빠른 시간 놀랄만한 성장을 이룬 한국의 개발경험과 노하우의 공유를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비엔티안 주에서 실시한 새마을 사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될 수 있도록 ODA 새마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7-16

나. 대 베트남 향후 확대지원계획 협의

김영목 이사장은 12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테 프엉(Nguyen The Phuong)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차관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였다.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의 ‘베트남 녹색성장전략(VGGS) 사업’ 착수보고회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의 ODA정책에 따른 대 베트남 확대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김영목 이사장은 “우리 신정부의 ODA 지원규모 확대 계획(2015년, GNI 0.25%)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무상원조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에 기반한 “베트남 도·농간 불균형, 개발 소외지역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진국으로의 도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V-KIST를 통한 과학 ODA’와 팡찌성,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의 지역종합개발사업,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 소개하며,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하였다.

한편, ‘베트남 녹색성장전략(VGGS) 사업’은 베트남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지난 달에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62개의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이카는 동 사업을 통해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협력하여 △국가 녹색성장전략 마스터플랜수립 자문을 비롯한 △법적 체계 구축 △관계부처 전담 기구 설립 및 운영 △지역개발전략 수립을 자문하고,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07-15

1. 베트남에서 ‘새마을 행복프로그램’ 추진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내년부터 4년간 2,500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에 ‘새마을 행복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9일 베트남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쩡응떤 상(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공동성명 합의를 통해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기반을 둔 새마을 행복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베트남 정부가 주요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인 ‘새농촌(New Rural Development)’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농촌종합개발 무상원조사업이다. 사업 지역은 베트남에서도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팡찌성과 라오까이성 2개 지역이며, 각각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5월 사업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코이카는 프로젝트, 국내초청연수, 전문가와 봉사단원 파견 등 종합적인 ODA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3-09-09

2.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오는 2015년까지 베트남에 350만 달러를 투자해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응웬 민 팡(Nguyen Minh Quang) 베트남 자원환경부장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결정됐다.

베트남은 토지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토지 사용권을 두고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담당부처인 자원환경부가 우리 정부에 이 사업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베트남의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베트남 토지행정청 GIS센터 직원 연수를 실시해 이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이용해 정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3-09-09

3. 베트남에 한국형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코이카는 내년부터 4년간 3,500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에 한국형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9일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베트남 브이꽁빙(Bui Quang Vinh) 기획투자부 장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결정됐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의 동력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본 따 '한국형' 과학기술연구원을 베트남에 설립해 줄 것을 지난해 응웬 쩌 쩡(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 방한 시 공식 요청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올해 중 협의를 통해 양국의 과업 범위를 확정하고 내년에 바로 착수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중저소득국에 진입한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베트남 내 우리나라 기업에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보급하는 윈윈(Win-Win)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09-09

다. 코이카, 미얀마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 성과 평가

코이카는 31일 오후 성남시 시흥동에 있는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미얀마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사후평가' 착수보고회를 열고, 미얀마 농촌개발 사업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008년~2010년 미얀마 흘레구 지역과 북부 지역에 농촌개발 사업과 관개기술 역량강화 사업을 각각 추진해왔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근대화 의 밑거름이 된 새마을 운동의 개도국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발전 경험 전수와 현

지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성과 중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인프라 시설, 주거환경, 교육시설, 보건환경 개선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했고 미얀마 전역에 적용 가능한 농촌발전 모델 개발 정책 수립 가능성을 보이며 미얀마 정부로부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이카는 공정한 사후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필요성 등을 확인해 사업을 발전·확산시키고, 성공적인 농촌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을 이끌어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새마을 운동 전파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13-05-31

라. 아제르바이잔 상하수도시설 구축사업 착공식 개최

코이카는 31일(현지 시간) 오전 아제르바이잔 압쇄론 반도에 위치한 쿠르다카니 구청에서 쿠르다카니 구역(777ha) 상하수도시설 구축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코이카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CP) 사업 중 중점 분야로 꼽히는 물 관리의 랜드마크 사업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압쇄론반도 쿠르다카니 구역에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2,618만 불 규모)을 추진해 왔다.

압쇄론반도는 아제르바이잔 인구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고, 연간 200mm의 적은 강수량과 카스피해 석유 개발에 따른 오염원 유입으로 지역 내 마련돼 있는 적은 수원마저 오염돼 지역 주민들이 식수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하수도 보급률이 낮아 하수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더러운 물이 마을 인근으로 흐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상하수도시설 공사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쿠르다카니 구역에 배수관로와

하수관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 지역 주민 약 1만 8,000명에게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고,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지역 보건위생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5-31

마. 케냐 라무 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코이카는 케냐 항구도시 라무 인근 지역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11일 케냐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2011년 케냐 정부는 아프리카 동부 최대 항구인 몸바사 항구의 물류 정체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라무 항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정밀한 지도가 필요해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코이카는 신한협업과 함께 지난 3년간 280만 달러를 투자해 1:5,000km 축적의 디지털 지도를 제작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케냐 차리티 은길루 국토부 장관은 “이 지도는 케냐의 중장기개발전략 ‘비전 2030’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2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라무항과 남수단, 에티오피아를 잇는 교통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3-09-11

바. 세네갈 11개 지역에 안전한 식수 공급

정부 무상원조 전달기관인 코이카는 지난 30일 오후(현지 시간) 세네갈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생루이(St. Louis) 주(州) 벨리 나마리(Belli Namari) 지역 식수개발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수식은 2010년부터 코이카가 추진해왔던 세네갈 식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정개발, 급수대 설치 등 식수시설 구축을 통해 티에스(Thies), 주르벨(Diourbel), 루가(Louga), 생루이(St. Louis) 주(州) 11개 지역 주민 10만여 명이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티에스 주(3개 지역)와 주르벨 주(1개 지역)에 식수시설이 성공적으로 구축됐으며 이날

착수식을 기점으로 생루이 주에도 사업을 시행해 가까운 시일 내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네갈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지하수에 의한 식수 접근율이 높은 편이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주민들이 수인성 질병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또한 식수 확보를 위해 아이들이 동원돼 학습에 지장을 받는 등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코이카 이종선 이사는 이날 착공식에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식수 접근성과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라며, 한국과 세네갈 간 긴밀한 협력으로 남은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수행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착공식에는 코이카 이종선 이사, 우마르 귀예(Oumar Gueye) 세네갈 수자원부 장관, 엘 하지 이브라히마 사호(El Hadji Ibrahima Sakho) 생루이 주지사, 지역주민과 현지 언론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3-07-31

ODA사업을 위한 국내 협력 동향

가. 무·유상의 만남, 코이카와 한국수출입은행 MOU 체결

정부 무상원조 전달기관인 코이카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은행장 김용환)이 24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무·유상원조 연계 확대를 통한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해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MOU는 지난 7월 5일 발족한 외교부, 기획재정부, 코이카, 수은 등 ‘4자 협의체’의 첫 후속 조치로써 개발원조 정책과 실행 전 단계에서 무유상원조 연계 활성화를 촉진하고, 향후 정부 부처 간 협업강화와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개발도

상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의 수립과 개발협력사업의 발굴·시행 및 사후관리 등 개발원조사업 전 과정 가운데 상호 연계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코이카의 무상원조 개발협력사업과 수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유상차관 프로젝트사업의 효과적인 연계 모델 개발과 활성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코이카는 “변화하는 원조환경에서 두 기관이 협력국의 개발계획 수립과 이행, 산업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유상 연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평가·조사 등 양 기관이 교류와 협력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와 EDCF는 지금까지 총 16개 나라, 24건의 무유상연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13-07-24

나. ODA 효과성 극대화 위한 실제적 협업 방안 논의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EDCF 담당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오는 26일 오후 회의를 갖고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무·유상 원조 간 연계 활성화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양 기관이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개발협력사업의 발굴·실행·사후관리 등 기획부터 전 과정을 협업을 통해 수원국의 수요를 조사하고 무·유상 원조의 효율적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날 정부에서 수립한 무·유상 원조 통합 국가별협력전략(CPS)¹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주요 중점협력국가의 사업 발굴 미션을 함께 실시하고, 국별지원계획을 공동 수립하게 된다. 또한

2010~2013 중점협력국(26개)

- 아시아(12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 아프리카(8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DR콩고
- 중남미(4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동구·CIS(2개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무·유상 원조의 연계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그간 사례를 분석해 3가지 모델을 구축하고 연계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계 지원 방식은 △코이카가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수은이 본 사업 건설을 EDCF로 지원 △ EDCF로 지원한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코이카가 담당 △코이카에서 실시한 소규모 시범사업 결과 효과성이 높아 확대 지원이 필요한 경우 EDCF로 대규모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형식이다.

평가부문 협력도 강화해 양 기관은 금년 중 2개국 4개 완공사업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상호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던 평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국내외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동향과 평가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상호간 이해도 증진과 연계협의 강화를 위해 직원 교류 및 공동 워크숍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3-08-25

다. 코이카와 서울특별시, 업무협조약정 체결

코이카는 6월 20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제개

¹ CPS : 무·유상 통합 중점협력대상국 26개국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

발협력 분야의 효과적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업무협조약정(이하 MOU)을 체결했다.

코이카와 서울시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개도국 대상 초청연수 실시 △개도국 도시개발협력을 위한 공동·위탁연구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민간기업, NGO 등 분야별 전문 인력 무상개발협력 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긴밀한 상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시행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며, 해외 봉사단(World Friends Korea)사업, 프로젝트·개발컨설팅 사업 등 향후 무상원조사업을 통한 협력 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이카 김영목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정책과 행정노하우를 국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원조 효과성을 배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6-20